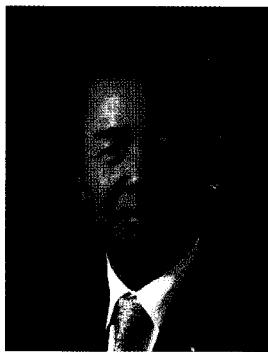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시킬 기계설비 발전에 정부 지원” 건의

–정해돈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사진>
은 지난 7월 8일 권
도엽 국토해양부 장
관과 한만희 제1차
관을 잇따라 면담하
고 다양한 업계현안
과 그 해결방안에 대
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해돈 회장은 “최악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
제도 개선, 수주물량 증가 및 범글로벌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킬 주역
인 기계설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정해돈 회장은 한만희 차관을 만난 자
리에서 “현행 저가하도급 방지 제도는 불합리
한 심사기준으로 저가하도급 방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의 저가하도급심사
회피 및 하도급 업체간 무한경쟁 유도로 초저
가 하도급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하며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을 발주자 설계가
격 대비 원도급자 낙찰율의 82% 미만인 경우
로 적용하여 줄 것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
성 심사 시 비가격요소를 제외해 줄 것”등 세부

적인 사항을 건의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재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토록 지시함으로써, 건
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건설
공사 수주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
다”면서 “현행 건산법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시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아직
까지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다수의 위
반업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설비공
사는 많은 공정 중 단순한 장비의 설치 등이 수
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하도급이 불가피
함은 물론,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
자에게 서면승낙 받기는 사실상 무척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건설업계의 현
실을 감안하여 차후 실시 예정인 하도급제한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하반기 실태조사를 유
예시켜 줄 것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발
주자의 서면승락을 받도록 이중규제하고 있으
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계·시공
기준 강화 및 6월 말 현재까지 단 한건만 발주
된 직할시공제의 확대도 건의했다.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금감원 시스템 정비 돌입

IMF 이후 기업의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음제도 대체수단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미결제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기업(하도급업체)이 구매기업(원도급업체)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되어 부도위기로 몰림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정해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18p,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공문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외담대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원도급자의 매출액 및 업종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7월말까지 외담대 관련 시스템 정비)도록 전국 은행에 건의<19p,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공문 참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외담대 관련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부서(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 02-3145-8605)를 운영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하도급자(판매기업)가 공사기성이 발생되면 원도급자(구매기업)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받고,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성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로 약정기일 만기 시 원도급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결제 방식은 2001년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어 국내기업 간 상거래 결제수단에서 그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건설업계도 이같은 결제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대금 미결재 시 발행인에 대한 금융권의 제재가 미흡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약정기일이 도래하여도 대출금을 결제하지 못해 설비건설업계 등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135-951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7층 / 전화: 6240-1131 / 전송: 6240-1114

<http://www.kmcca.or.kr>

문서번호 설비협정책'11-173호

시행일자 2011.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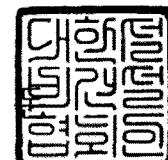
받 음 국무총리

참 조 재정금융정책관

제 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건의사항 회신요청

- 효율적인 국정운영관리와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력하시는 국무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전국의 6천여 기계설비건설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법정 단체이며, 기계설비공사는 전체공사비의 20~50%를 차지하는 냉·난방, 급수·급탕, 위생, 공기조화설비와 플랜트·반도체 및 LCD 크린룸 등 건축물과 산업현장의 두뇌와 혈관과 같은 중요부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흔히 건설업계에서는 “전자어음”이라함) 제도는 IMF 이후 기업의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음제도 대체수단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결제제도로서 국내기업 간 상거래 결제수단에서 그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경기 악화, 특히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계에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인인 구매기업(원도급자)이 만기에 미결제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판매기업(하도급자)이 구매기업(원도급자)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되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협회 회장님께서 직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였고, 귀 실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및 관련 시중은행 등과 우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담당자 회의를 갖은 바도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협회 일부 회원사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귀 실 주관으로 진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 내용을 우리협회에 안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 해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설무경

수신자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정책지원실)
(경유) (사본수신) 금융감독원 원장(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1팀)
제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관련 건의사항 회신요청(설비협정책 11-173호, '11. 7. 4)과 관련됩니다.
 2. 귀 협회에서 제기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구매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수준을 넘어 제한없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일부 파악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구매기업의 매출액 및 업종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각 은행에 대해 지도('11.4.15)한 바 있습니다.
 4. 아울러 귀 협회의 회원사들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금융감독원(기업금융개선국)에 민원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동 내용을 귀 협회의 회원사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卷之三



한도 외 담보 특별융자 실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에서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합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정해돈) 재경위원회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 9. 9 추석연휴 전일까지 한시적으로 500억원 규모의 한도외 담보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일정 담보를 제공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며, 융자한도는 총 300,000원으로서 조합원별 최고 한도는 5억원. 상환기한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실시되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일 현재 기본 융자(신용운영자금, 어음할인등)를 이용중이거나 융자상환에 의한 가산배수 이용 조합원, 지급·기타 보증이용 조합원 모두 한도 외로 담보 특별융자가 가능하며, 한도 외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부동산 또는 예·적금 등 물적 담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체납(처분유예 포함) 조합원 및 조합 규정에 의하여 융자가 제한되는 조합

원(금융불량 및 영업정지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조합에서는 한도외 담보특별융자 실시와 관련하여 담보설정에 따른 조합원사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설정비용 종감정평가 수수료, 법무사 보수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설정비용 대부분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여 융자 신청에 따른 조합원사 부담이 크게 감소되어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법상 조합이 불가피하게 부담하기 힘든 채권매입비, 인지세(1/2), 화재보험료, 근저당권 해제비 용 등은 조합원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시지가 등 시가조사가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시세 차익등을 이유로 조합원사가 별도로 감정평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사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공제조합 지점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갱신(특별융자 약정체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융자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일정 담보를 제공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 국세체납 조합원(처분유예 포함)
 - 조합 규정에 의하여 융자가 제한되는 조합원
 ※ 금융불량 및 건설업 영업정지 등

2. 융자종류

담보운영자금(예·적금,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제공에 의한 융자)

3. 융자실시기간

2011. 9. 9 접수분까지

4. 융자한도

총 300,000원 (조합원별 최고 융자한도 : 5억원)

5. 상환기간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6. 융자이율 : 납부기간별 융자이율 차등적용

기 간 별	이 율	비고
31일 이내 (매월 이자 납부시)	연 4.5%	
31일 초과 92일 이내	연 5.0%	- 이자는 후취
92일 초과 184일 이내	연 5.5%	- 1년은 365일 기준
184일 초과	연 6.0%	
연체이율	연 13%	

※ 매월 이자 미납시 추가 이율 부담 유의

7. 기타 사항

- 한도거래용채무약정 갱신(특별융자 약정 체결) 필요
- 기본 융자를 이용중이거나 융자상환에 의한 가산배수 이용 조합원, 지급·기타 보증이용 조합원도 한도 외 담보 특별융자 가능
- 융자신청에 따른 담보종류 및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하는 공제조합 지점 또는 영업소로 문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건의



▲ 정해돈 회장(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은 지난 7월 6일 ‘국무총리 초청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황식 국무총리(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건의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7월 6일 서울시 중구 황학동 원활머니보쌈 본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초청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해돈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돈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강력히 추

진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간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하도급이 만연되고 있다”면서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수급 문제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작년 10월 총리님과의 산행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수급과 관련된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후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도 여러번 방문하여 많은 자료를 드렸으나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황식 총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조속통과 및 저가하도급 방지 대책 마련 건의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7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의 국회 조속 통과 및 저가하도급방지대책 마련 등 설비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영환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정책위 의장, 김희철 의원, 노영민 의원, 김재균 의원 등 민주당 당직자를 비롯해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부회장 등 26명의 각 협회 및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돈 회장은 "지난 7월 5일 설비공학회 40주년 행사에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계설비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다음 "현재 우리나라는 기계설비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시공 및 관리에 대한 법령이 전무한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지난 2009년 발의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면서 "저탄소



▲ 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녹색성장을 위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정해돈 회장은 “공공공사의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저가하도급심사대상 및 평가방법 개선과 민간공사의 경우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하도급 방지 기준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위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인 기계설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입법 강화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입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설공사의 적정가격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저가하도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같은 분리 발주의 입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선 정책위 의장 역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한 일이므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입법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10대 중소기업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세울 10대 대책안에는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보호업종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 보호 △사업 조정제도 실효성 증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 발전 △대기업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011년도 시공능력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제1종)에 대한 2011년도 건설공사 시공능력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건 명 : 2011년도 건설공사 시공능력 공시
2. 공시대상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업체
3. 공시내용 :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011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
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
업종별 · 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4. 열람 및 등록수첩 기재 장소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 · 도회 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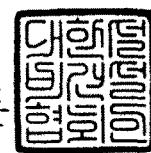
시 · 도회	주 소	전 회
서울 특별시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6층	(02)6240-1200
부산광역시 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51-2 부산설비건설회관 7층	(051)866-0070
대구광역시 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4 건설회관 6층	(053)742-8935
인천광역시 회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43-9 로터리빌딩 601호	(032)888-0277
광주 · 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501-15 주택회관 3층	(062)527-3787
대전 · 충남도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925 2층	(042)932-3900
울산 · 경남도회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36-11 경남은행 명곡지점 3층	(055)288-4818
경기도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201호	(031)252-4178
강원도회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3-7 동일건설 2층	(033)251-5044
충북도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71 오성빌딩 2층	(043)265-2274
전북도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1573-1 사학연금전주회관 7층	(063)241-0070
경북도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72-25 정성빌딩 2층	(054)281-6640
제주도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도1동 1689-1 교보빌딩 4층 407호	(064)755-9828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 · 도회에 비치하고 있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자에게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고 있으니, 해당 시 · 도회에서 기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9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해돈

TEL : (02)6240-1100 FAX : (02)6240-1114



배관 34명, 전기용접 4명, 기계조립 4명 응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7월 19일 한국폴리텍I대학(정수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제27회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을 실시했다.

이번 실기검정에는 지난 5월 서류심사를 통과한 42명(배관 34명, 전기 용접 4명, 기계조립 4명)이 실기검정에 응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기검정에 참석한 이상일 인정기능사 심사위원장(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석환 심사위원(경기도회 회장),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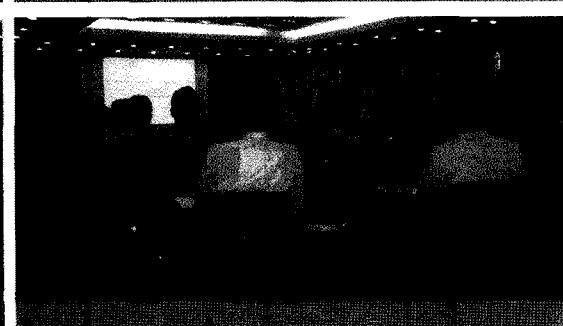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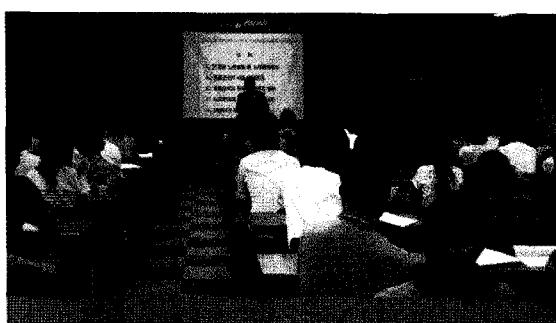
괄본부장, 나장백 한국폴리텍I대학 서울정수 캠퍼스 학장은 열심히 시험에 임하고 있는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심사위원장은 응시생들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은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자격증 이므로,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합격자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

회원사 밀착형 서비스 · 경영지원사업 강화 일환,

노무강습회 전국 순회 실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전국 시 · 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 회원사 밀착형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 노무강습회는 최근 변경된 노동법률 및 노무관련 제도를 비롯하여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관리 ▲일용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 ▲산재보상 처리실무 ▲노동부 진정 · 고발 처리실무 등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협회 노무자문위원인 이덕조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파트너)가 강의를 맡았다.

시 · 도회에서 실시한 노무강습회 호응도 조사 결과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실무자 중심의 열성적인 강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회원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활

발한 질의응답으로 회원사 실무자들이 그동안 노무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번 강습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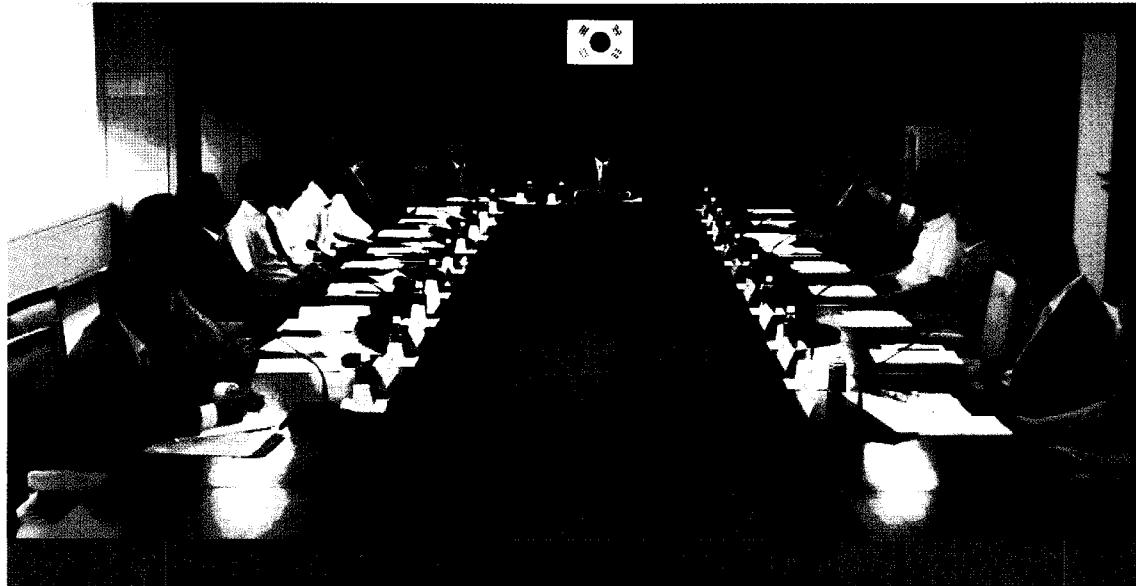
한편 대구광역시회와 강원도회는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거나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별도의 노무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며, 다른 시 · 도회들도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의 이번 전국 순회 강연은 정해돈 회장이 취임사에서 “회원사의 현장 애로사항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회원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 법률 및 경영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

▼ 시 · 도회 노무강습회 일정표

시 · 도회	강습회 일정	장소	호응도
서 울	7월 8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	매우만족
부 산	6월 23일	설비건설회관 상의홀	만족
대 구	6월 21일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	만족
인 천	7월 13일	인천상공회의소	매우만족
광주 · 전남	7월 15일	광주 정보통신센터	만족
대전 · 충남	7월 5일	대청ENG 빌딩	만족
울산 · 경남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소강당	만족
경 기	6월 24일	수원상공회의소	만족
강 원	7월 7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매우만족
충 북	6월 30일	중소기업지원센터	만족
전 북	7월 12일	전주 사학연금회관	만족
경 북 경 북	구미 : 6월 20일	구미상공회의소 종회의실	만족
	포항 : 6월 27일	포항청년회의소 회의실	

협회 주요 추진사업 설명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7월 17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 · 도회 사무처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하도급제한 위반 혐의업체 실태조사 △설비건설업 등록 등 정부 위탁업무 신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등 최근 주요 협회 추진사

업을 설명하고, 시 · 도회 사무처장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지를 당부했다.

협회는 또 △협회 자체 감사 실시 계획 △협회 사무처와 조합 지점의 동일건물 입주 추진 △각 시 · 도회 회의 및 행사 등 기타 제반사항 등 협회 내의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 · 도회 사무처장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하는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오는 10월 14일에 개최됩니다.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총 14개 직종에 대해 실시합니다. 입상자에게는 산업연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오니, 건설기능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회개요

- 날짜 : 2011. 10. 14 (금)
- 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609번지)
- 경기직종 및 인원
건축배관, 전기용접 등 14개 직종이며,
직종별 20명 내외

◎ 구비서류 및 참가 자격

- 참가신청서 교부기간 : 8. 1 ~ 8. 25
※ 직종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① 참가신청서(소정양식) – 1부
※ 건단련 홈페이지(www.fcas.or.kr)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www.kmcca.or.kr 공개자료실) 참조
 - ②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 ③ 이력서 – 1부
- 참가자격
 - 대회 개최일 현재 만14세 이상
 - 현장(또는 참가직종) 실무경력 1년 이상
 - 본 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 입상 경력이 없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참가 가능

◎ 접수장소 및 문의처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 시상내용

- 각 직종별 1위 : 150만원 및 국토해양부장관상
- 각 직종별 2위 : 100만원 및 대회장상
- 각 직종별 3위 : 70만원 및 대회장상

◎ 입상자 특전

- 각 직종 1·2·3위 입상자에게는 산업연수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 각 직종 1위 입상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종목 본선 참가자격 부여
-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장려금 지급

◎ 입상자 발표

- 10월 19일자 건설경제신문 및 건단련 홈페이지 ◎

2011년도 하반기, 서울관내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온 서울시 관내 설비건설업체 임직원의 자부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으로 1회원 1인에 한하여 추천(신청)하되,
 - 설비건설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생 가점 부여)
 - 설비건설업체에서 5년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10년 이상 근속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 부도 발생 등으로 폐업한 회원업체의 대학생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 ※ 신청 제외 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본인 및 대표이사 자녀,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휴학생

□ 선발인원 : 10명

□ 장학금액 :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및 접수 문의

신청
방법

- 서울시 관내 회원사 대표이사 추천
- 서울특별시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 (http://www.kmcca.or.kr → 서울특별시회)에서 신청서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장학생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 일체
신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 8. 1(월) ~ 8. 19(금) (19일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5-1 설비건설회관 6층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선발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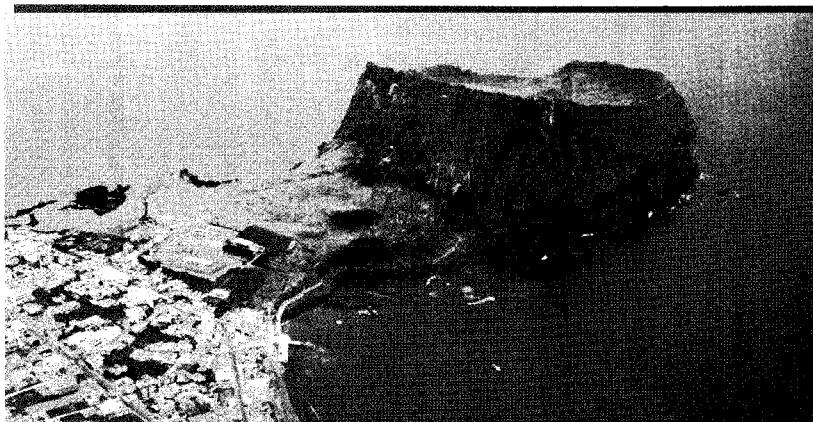
- 선발 : 회원사 대표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 ※ 단, 최근 4회(2년)이내에 장학금 수여업체는 차순 위로 결정함
- 발표 : 2011년 9월 초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문의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경영지원실 (02-6240-1207) ☎

장영홍 회장,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건설분야 분과위원 활동 펼쳐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주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회장(사진 오른쪽)은 제주도 선정을 위해 전국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은 제주 성산 일출봉)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주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영홍 회장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 및 부대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비건설인 모두가 투표 참여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도는 28개 후보지역 중 인간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지역이며 세계 최초로 자연환경분야에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바 있어 선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 속에 전화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11월 11일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선정된다.

투표 방법은 표와 같다.

기타 자세한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064-710-3951)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064-755-9828)로 문의 바란다.○

전화 투표

- ① 001-1500-7715
- ② 전화 연결 후 60초간 영어 안내가 끝나고 “빼~ 소리가 나면 7715(제주코드) 입력
- ③ 감사 멘트(Thank you)후 종료

인터넷 투표

- ① www.N7W.com 클릭
- ② 투표배너 클릭
- ③ 제주도 등 7곳 선택 후 →오른쪽 하단 ‘Continue to Step 2’ 클릭
- ④ 회원가입 후, 하단의 ‘Register’ 클릭
- ⑤ 회원가입시 가입한 메일함에 메일 수신 확인
- ⑥ Successfully 단어가 보이면 투표 완료